

1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2.12.20.(화) 오전 11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권혁남 위원장, 박찬재 부위원장, 문해주, 정의식, 이현숙
유환익, 정경모, 김희중, 김세한, 천경숙 위원 10인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 주요 내용

▲ 연합뉴스TV 제6기 시청자위원이 선정한 시청자위원상 시상식 개최

- 지난 10.17일부터 21일까지 한주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일상에 침투한 마약 범죄를 집중 보도, 직접 3일에 걸쳐 다섯 군데의 클럽을 마약 거래나 투약 등의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직접 취재, 마약 유통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초임 기자로서 매우 위험한 취재임에도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의 마약 유통 흔적을 직접 찾아내 시청자들에 전달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을 발휘하였고 또한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팀장... 부실대응과 지휘체계 부재 고발 등과 같이 단독 보도하였음. 신입 기자임에도 우리 사회의 대형참사나 강력 사건 뒤에 숨겨진 사실을 예리하게 찾아내고 취재함으로써 기자의 고발기능도 충실하게 수행한 사회부 한채희 기자에게 시청자를 대표하여 상패와 부상을 시상하였음.

▲ 권혁남 위원장

지난 2년 동안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가는 느낌이다.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전에는 공영방송 성격의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의 이미지가 조금은 따분하고 고루하면서 변화에 둔감하다고 생각했었다. 2년의 시청자위원 활동을 통해 갖게 된 연합뉴스TV 이미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주인이 없고 관료적인 전통적 조직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여기에 인력 부족이라는 또 다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더욱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TV가 안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점들은 인력부족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조속한 노력이 요구된다.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합뉴스TV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하겠다. 또한 연합뉴스TV의 소유구조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보도채널은 채널의 특성상 다른 방송에 비해 상업적 이익보다는 공익적 이익에 더 많은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만약 보도채널이 상업화되면 보도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뉴스의 상업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연합뉴스TV의 소유구조는 지금과 같이 공영성격을 유지함으로써 정치와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보도채널로서의 위상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대체로 공감합니다. 인력 부족이 연합뉴스TV의 보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영진이 세워놓은 3개년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충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인력충원의 기반은 자본잠식이 먼저 해소돼야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익유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거나 여타 방법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의 소유구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보도채널도 상법상 영리 법인이긴 하지만,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특수한 성격의 기업이자 언론매체입니다. 연합뉴스TV는 창사 10년을 거치는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여러 문제점과 갈등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합뉴스만큼 보도채널의 운영에 적합한 공공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금의 도전을 함께 극복해서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훌륭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양사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박찬재 부위원장

- <11.26 편모 가정서 비극 반복..."여성 경제활동 지원해야" >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신촌 모녀 사망 사건까지 반복되는 '모녀' 비극의 원인을 진단한 보도로 반복되는 비극을 방지하고자 하는 언론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 11. 25 <[단독] 신촌서 모녀 극단적 선택..."전기로 5개월 밀려"> 보도를 통해 30대 딸과 어머니는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으나 주소지가 이사 오기 전 집으로 되어 있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11. 26 반복되는 편모 가정의 비극의 원인에 대한 추가 보도를 이어감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 인식 확산에 노력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절반 이상 가계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비율은 89.3%에 달하여 남성에 의존하는 가계 경제 구조의 특성으로 남성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해 수입원이 사라지면 '모녀'나 '모자'는 비슷한 비극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여성 가장이 스스로 돈을 벌 어보려 해도,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력 단절에 따른 노동시장 재진입이 더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혀 이런 것들로 쉽게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 위험에 빠지기 쉬워진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편모 가정에서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편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취약 가정 내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 지원정책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무엇이었던지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편모 가정의 비극을 언론에서 단순 사건보도에 그치지 않고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찾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임기 처음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라 낯설고 열정과 의욕이 앞서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언론은 매 순간을 관찰하고 비판하며 기록, 보도하기에 그 자체로 역사가 되고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의미를 새기며 미력하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 하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2년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고민하며 숨 가쁘게 달리고 계신 언론

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정직하고 공정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연합뉴스TV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도를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 문해주 위원

- 지난 11월 16일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단계인 '아르테미스 1호'가 무사히 발사되어 25일 동안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하고 12월 12일 귀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TV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를 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발사 시간을 전후하여 우주 전문가를 초빙, Q&A를 통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설명하면서 현장과 연결하여 발사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이 좋아보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발사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각국은 달탐사를 기술패권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협약에 가입하여 달탐사 협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5일 우리도 달탐사선 다누리호를 발사하여 달을 향해 순항 중에 있어, 국민적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탐사 프로젝트 명과 발사체와 우주선 등을 표현하는 데에 명확하게 와 닿지 않아 시청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 명확히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 '아르테미스 1호'를 우주선으로 표현하고 '오리온'을 (무인)우주선으로 표현함으로써 혼동
→ 정확한 표현은 '아르테미스'는 달탐사 프로젝트(이번이 첫 번째라서 '아르테미스 1호')
이고 우주선은 '오리온', 발사체는 'SLS(Space Launch System)'

또한 지난 8월 5일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후 12월 29일 최종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여 우주개발(달탐사, 화성탐사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연합뉴스TV 보도)하였으며, 내년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준비하는 등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고 우주패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연말연시를 기해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방영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연합뉴스TV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보도, 정확한 보도, 분석 보도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과학기술 관련 뉴스는 우주, 원자력, 반도체 등 국내외적인 대형 이슈가 있는 분야에서는 보도의 빈도와 비중도 함께 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뉴스는 늘 부족함이 많아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가능하다면 과학기술 담당기자(또는 과학기술 전문기자)를 두어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중점 취재토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먼저 그간 과학기술분야 보도에 관심을 갖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지적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도의 난이도, 보도 여건 등으로 인해 시청자 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내년 1분기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비롯해, 아르테미스 계획, 원전과 양자 기술 등 주요 과학기술 이슈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보도를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식 위원

- 11/20, 전기차 150만대, 1년동안 74% 증가라는 보도를 보고, 친환경적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면,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서 쉽게 충전할 수 있을꺼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보도로 전기차 충전소와 충전 시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한 보도가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고, 또 수소차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니, 같이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동안 2년 동안 시청자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면서, 뉴스를 보는 시각이 많이 변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뉴스 하나하나가 보도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급박했던 과정 등, 피할 것 같은 순간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순간순간마다 사명감을 갖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front, desk 기자님들과 모든 직원 분들, 연합뉴스TV의 발전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시는 사장님이하 모든 임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알게 되면서, 또한 마음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안타까울 때도 많았습니다. 불철주야 중립적인 시각을 견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모든 연합뉴스TV 여러분들께 마지막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통한 질책과 격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연합뉴스TV 임직원 여러 분들과 시청자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 들게 고마움과 헤어짐의 아쉬움을 보냅니다. 이번 기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후라도 가끔 번개를 이용하여 지금껏 맺어 왔던 인연의 끈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시청자 위원님들과 보람되고 더욱더 거듭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서 변해있는 연합뉴스TV를 기원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확충계획이나 잦은 고장 등의 문제는 전기차 상용화 초기 시점부터 여러차례 다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 주요 업무용 빌딩과 관공서는 물론, 아파트 주차장, 편의점 등지에도 설치된 곳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에 맞춰 충전은 물론, 정비 편의성과 내구성 등의 문제를 다뤄볼 계획입니다.

▲ 이현숙 위원

- [출근길 인터뷰]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경찰 채용 남녀 구분 없앤다(12/12) 한동안 남성 역차별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던 경찰 채용 체력검사가 바뀐다는 소식을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 다루어서 좋았습니다. 일선 경찰이나 미디어 속의 경찰을 주로 상상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지키는 경찰이 힘이 있어야 한다며 여성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경찰은 행정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에게 체력시험에서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 채용되는 경찰의 성비는 여성이 10% 내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왕 논란이 되었던 경찰 채용 체력검사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런 점도 같이 다루어 실제로 여성에게 특혜를 준 것인지 등도 함께 다루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보도 아쉬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논란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도 제가 보지 못한 것인지 관련 기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엔 지속가능한 성장목표에서 명시되어있는 성 재생산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 세계적인 교육 목표인 포용과 민주주의 실현에 부합하지 못한 내용으로 통과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역에서도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교육청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아동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셨으면 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출근길인터뷰>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 인터뷰 원고를 작성할 때 이슈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근길인터뷰 콘셉트 자체가 5분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하지만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사안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관련 내용은 추후에 후속 및 기획 특집 등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유환익 위원

- "연합뉴스TV" 사명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을 좀더 간단하고 발음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명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연합뉴스TV"는 속보성 뉴스매체인 연합뉴스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의미가 있으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적 측면에서의 의미보다는 간명한 명칭, 발음하기 쉬운 명칭이 더 접근하기 쉬울 것으로 보여서 2~3개 단어, 영문자로 된 명칭으로 바꾸어 보는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임
- 연합뉴스TV가 속보성 방송 매체임을 고려하면 구성원들을 좀더 채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과 이슈가 등장합니다. 연합뉴스TV는 속보성 매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매체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송하는 것이 생명이고 단독 보도도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사고 보도에서 보았듯이 보도를 이끌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순전히 기자, PD들의 개인적 역량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킬러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면 특별한 특징이 없이 이런저런 뉴스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다소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연합뉴스TV만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해보입니다. 유명앵커를 메인앵커로 초빙하거나, 뉴스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코너를 개설하거나, 기타 타방송과 차이를 낼 수 있는 전달방식 등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사명에 대해서는 그간 개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붙였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사명/충원/앵커 외부초빙)

사명: 2011년 12월 개국 당시 공모 통해 '뉴스Y'(news Y)로 출발

2015년 1월부터 '연합뉴스TV'로 채널명을 변경했음

(YTN과의 차별화, 채널명과 법인명 통일)

충원: 개국 이후 연간 평균 5명가량의 신입이나 경력기자를 채용했음

(신입 2016년 5명 2017년 7명 2019년 5명 2021년 4명 2022년 4명)

앵커 외부초빙: <정정당당> 2012.10~2014.11 신율

2015.1~2015.9 김민전 박상헌

<담담타타> 2015.6~2016.5 고성국

- 킬러콘텐츠에 대해선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디어 뿐 아니라 인력과 자본이 투입
돼야 하는 작업인 만큼 저희 여건에서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여력을 감안하면서도 그
렇다고 너무 늦지 않게 시도해보겠습니다.

▲ 정경모 위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고인(古人)
과 대화를 하며 생각에 잠기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 나는 특히 고서(古書)와 고화(古畫)를
좋아한다. 지난달은 간송박물관, 국립 박물관, ‘중국 전람회’ 등에서 고서화를 볼 수 있는 기
회가 많아, 시공을 초월하여 ‘고인의 멋과 맛’에 취할 수 있었던 즐거운 날이었다. (중략)
보람찬 내일을 위해 매사 고인과 대화로 옛 것을 고쳐 새롭게 만들어 가는 작업이야말로
“온고지신(溫故知新)” 지름길인 것이다. 이처럼 고인과의 대화는 현대를 위한 “미래의 산실”
이자 “창조의 길잡이”이다. “(※출전 : 이병주, ‘고인과의 대화’ 『세한도』 (서울: 탐구당),
1974.) <고인과의 대화>는 1974년 탐구당에서 출간된 『세한도』에 수록되어 있는 수필로
‘고서와 고화의 감상을 통해 얻게 되는 깨달음이 고인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
리의 삶의 지표가 되짚어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출전 : 유흥준, ‘서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1』
(서울: 창비), 2011.) 이 말은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 유한준이 남긴 명언을 토대로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이 구절을 좀 고쳐서, 문화유산을 보는 자세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는 정
조 때의 문장가인 유한준(兪漢雋, 1732 - 1811)이 당대의 수장가였던 김광국(金光國)의 화첩
석농화원(石農畵苑)의 부친 발문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를 원문 그대로 옮기면 “알면 곧 참
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갓
모으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12월을 맞아 이달에
는 지난 한달 간 보도된 내용 중에서 특히 ‘고려청자’에 대한 보도가 연속되어 반가운 마음
으로 잘 보았습니다. 먼저 ‘천년을 견딘 비취색 ‘...다시 만나는 고려청자’(2022.11.23.) 보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청자실을 개편하여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상
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인 고려청자는 그 특유의 은은한 푸른빛으로 유명합니다. 고려청자에
대한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은 여전히 높은데요, 사실 실제로 접하며 볼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박물관에서 고려청자의 아
름다움을 직접 보고 즐기며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익살스러
운 표정의 청자 사자 향로 보러 가요’(2022.11.26.) 보도도 흥미롭습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신출귀몰, 태안 바다의 고려청자’ 전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충
남 태안 앞바다에 침몰해 있는 고려시대 배들로부터 건져 올린 수만 점의 유물 중 보물로
지정된 고려청자들만 모아서 처음으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고려청자로 만든 사자 모양
의 향로, 두꺼비 모양의 청자 벼루, 아름다운 곡선비의 매병 등 다양한 모양의 청자 유물들
이 전시되어 있어서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속
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고인(古人)과의 대화’를 통한 휴식과 재충전은 꼭 필요한 시간입니
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가운데 삶이 더욱 풍성해
지고 충만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보도국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시청자들이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 담당 기자들이 기사 발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는 나열형 보도가 되지 않기 위해 취재기자가 여러 콘텐츠를 접하며 다양한 보도 방식 또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역사가 남긴 수 많은 유물과 우리 사회가 생산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친절한 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희중 위원

- 주거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문제 지적 '바람직', 지난 14일자 사회 뉴스 중 '한파 속 취약가정 겨우살이...냉골 같은 방'은 주거 취약 가구 아이들의 난방 문제를 기사화한 것임. 내용은 요즘 올들어 최악의 한파 속에 냉골에서 지내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주거 현장을 취재하고, 급등한 난방비 걱정에서 제대로 된 난방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인터뷰해 내보냄으로써 정부 등의 지원이 절실함을 시사하였음. 기사에서는 한 발 더 나가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제도의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불과 한 달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짐을 분명하게 지적해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한 주거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가 11%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 확대가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기사로 보임.

- 전세금 피해 현황과 문제점 지적, 당국과 입법부 경각심 일깨워, 지난 15일 <배달잇슈>에서는 빌라왕 김모씨가 숨지며 발생한 수 백명의 전세금 사기 피해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섬. 특히 기사에서는 최근 전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의 '뒷북 행정'과 관련 법규가 상정되어 있음에도 개점 휴업 중인 국회의 파행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임.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세입자가 나오지 않도록 연합뉴스TV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와 입법 당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서주길 바람.

▲ 추승호 보도본부장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강화해가겠습니다

▲ 김세한 위원

- <'주 52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시민들 생각은> 기사 편집 아쉬움, 12월 14일 저녁 보도된 <'주 52시간이 최대 69시간으로'...시민들 생각은> 기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당 근로 가능시간 확대 방안'과 관련된 보도였습니다. 노동 관련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개편안의 내용 중 한 주마다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1개월이나 3개월, 6개월 등 통틀어서 계산하자는 안에 대한 시민 반응을 취재한 보도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기사 제목이 '시민들 생각은'이라고 잡힌 만큼 기사 제목을 보고 기사를 클릭해서 확인한 시청자들은 여러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의 이런 저런 의견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사를 열어봤을 텐데, 정작 뉴스 내용 중에 인터뷰가 차지하는 분량이 너무 적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총 2분 6초 분량의 기사는 앵커 멘트-취재기자 멘트-시민 1 인터뷰-취재기자 멘트-시민 2 인터뷰-취재기자 멘트-시민 3 인터뷰의 순으로 편집됐는데, 3명의 시민 인터뷰

분량을 전부 합쳐도 채 30초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취재 기자의 멘트를 줄이고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구성하든가, 아니면 기사 제목을 다르게 잡던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취재력 보여준 경찰발 단독 보도 기사들, 12월 7일 보도된 소재형 기자의 <[단독] "가만두지 않겠다"...구치소에서도 협박 스토킹범> 기사는 한 여성 치과의사를 스토킹하다 고소당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30대 스토킹범이 구치소 안에서도 '당신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니, 출소한 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 내용으로 계속 협박 편지를 보내며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의 강남경찰서발 단독 보도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시청자위원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채희 기자가 12월 14일 보도한 <[단독] 미제로 묻힌 묻지마 폭행...DNA로 5년 만에 덜미> 기사는 각각 5년 전과 2년 전 충북에서 발생한 2건의 연쇄 폭행 사건 피의자가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다 구속된 60대 남성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을 통해 잡혔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기사에는 두 번째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북 제천시 경찰관의 인터뷰도 담겼습니다. 취재 소스가 경찰청 본청인지, 제천시인지 국과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기자의 취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2년 동안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갖고 뉴스를 보게 됐고, 다른 시청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뉴스를 분석해보는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주52시간제 개편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강화하고 심층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 천경숙 위원

- 2022-12-04 음주운전에 하룻길 초등생 사망...구속영장 신청,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 소재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9살 남학생이 음주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2월초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음주차에 숨진 사고입니다. 타 방송의 뉴스보다 조금 더 사건에 대한 방송을 해주어서 사건의 심각성을 시청자가 느끼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12월 8일 [배달잇슈] 이진우기자의 정확하고 발음과 강조해야 할 곳에 효과음과 그래픽과 자막을 더해서 시청자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TV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각적, 청각적으로 좋았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가겠습니다.